

제12호 | 2015.8.19

열대과일 수급 현황과 시사점



FTA

열대과일 수급 현황과 시사점

국내 생산 동향

□ 2014년 국내 주요 열대과일¹⁾ 재배면적과 농가수는 각각 58ha와 174호로 추정

- 최근 열대과일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작물로 부각되고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 특화·고소득작목 육성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열대과일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음.
 - 제주지역 망고 재배면적은 23.8ha(2014년)로 2001년(7.1ha) 대비 2.4배 증가
- 일부 열대과일의 경우 농가와 유통업체 간 계약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됨에 따라 재배농가수가 빠르게 늘어남.
 - 2014년 패션후르츠 재배농가수는 43호에 불과했으나, 2015년 80호의 신규 농가가 유통업체 D사와의 계약재배에 참여함.
- 열대과일 중 재배면적이 가장 큰 품목은 망고로 전국 재배면적은 25.5ha임.
 - 패션후르츠(9.4ha), 용과(6.1ha), 구아바(5.4ha), 파인애플(4.5ha), 아보카도(4ha), 파파야(2ha) 순임.

□ 열대과일 재배농가 중 약 50%가 제주에 위치하며, 전남, 경남 등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 제주의 열대과일 재배면적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재배 품목은 다양해짐.
 - 제주의 바나나와 파인애플 재배면적은 1980년대 말에 각각 800여ha와 270여ha에 달했으나, 1990년대 초 수입자유화로 재배면적이 급감하여 현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임.
 - 그러나 망고, 구아바, 용과 등을 재배함으로써 국내 열대과일 주산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과거 열대과일 재배지역은 제주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온이 상대적으로 온화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됨.
 - 경남은 거제(파인애플)·의령(구아바)·통영(망고, 용과)·진주(용과, 패션후르츠), 전남은 여수(망고)·고흥(패션후르츠)·고흥(패션후르츠)·광양(패션후르츠)·곡성(파파야), 경북은 구미(패션후르츠)·칠곡(패션후르츠) 등에서 열대과일을 생산하고 있음.

1) 주요 열대과일은 망고, 패션후르츠, 구아바, 파인애플, 용과, 파파야, 아보카도, 아페모야, 바나나를 포함.

표 1. 국내 주요 열대과일 재배 현황(2014년)

품 목	지 역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망 고	경남	3	0.9	7
	경기	1	0.2	0
	전남	5	0.6	8.9
	제주	50	23.8	326.6
	소계	59	25.5	342.5
패션후르츠	경남	10	1.9	2.8
	경기	1	0.5	0.2
	경북	25	4.3	95.3
	전남	6	2.4	20.2
	제주	1	0.3	1
	소계	43	9.4	119.5
구아바	경기	4	2.1	2.2
	전남	4	0.4	0.4
	제주	13	2.9	2.2
	소계	21	5.4	4.8
파인애플	경남	20	4.5	167
	소계	20	4.5	167
용 과	경남	4	1.9	11
	제주	15	4.2	75.6
	소계	19	6.1	86.6
파파야	경북	2	0.5	8.8
	전남	3	1.5	7
	소계	5	2	15.8
아보카도	제주	5	4	0.4
	소계	5	4	0.4
아떼모야	제주	1	0.1	2
	소계	1	0.1	2
바나나	제주	1	1	31
	소계	1	1	31
합 계		174	58	769.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조사 결과를 정리함.

패션후르츠 재배농가 사례

〈A농가〉는 전북 김제시 봉남면에 위치하며, 2015년 패션후르츠 재배를 시작함. 지자체의 고소득작목으로 선정되었고 유통업체 D사와의 계약재배가 이뤄짐으로써 김제시에서 20호 농가가 패션후르츠를 재배함. 김제 외에도 제주, 진천, 구미 등 지역에서 총 80호 농가가 D사와 계약재배함. A농가의 재배면적은 1천 5백 평이며, 가온시설과 관수시설을 갖춘 7동의 하우스에서 재배함. 시설투자비로 1억 5천 만원을 투입하였고, 2015년 봄에 약 1천 주의 묘목을 D사를 통해 구입하여 식재함. D사는 대만에서 패션후르츠 묘목을 수입하여 계약재배농가에 1주당 5,500원에 판매함. 패션후르츠는 박과 식물로 식재한 당해 연도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1주당 1회 500개 이

상의 열매를 맺음. 봄과 여름 두 차례 개화하고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수확하는 작물로 생산성이 비교적 높음. 또한 인공수분(受粉) 외에 관리가 용이하여 노동력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익은 열매는 저절로 낙과하며, 이를 모아두었다가 주 3회 지역 원협에 수매하고, 이를 다시 D사에서 구매함. 판매가격은 D사와 협상 중에 있으며, 개당 350~50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됨. D사는 4~5개의 소포장 단위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납품함.

패션후르츠는 다른 열대과일에 비해 재배가 용이하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별도의 기술 지도를 받지 않고 있으며, 비타민C 등의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여성소비자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계약재배를 통해 D사가 생산량 전량을 구매함으로써 안정적 판로가 보장되었다는 점이 A농가를 포함한 계약재배농가의 참여를 유인함.

〈B농가〉는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 위치하며, 패션후르츠 외에도 파파야, 용과, 차요태, 오크라, 아티초크 등 다수의 열대과일과 채소를 재배하고 있음. 패션후르츠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의 보급종을 들여와 재배하기 시작함. 처음에는 산목(과일에서 씨를 직접 채취하여 재배)을 식재하였으나 2015년 봄 접목(생장력이 강한 대목에 접붙임을 한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함. 산목은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과실의 크기가 작다는 단점이 있음. 반면, 접목의 과실 크기가 커 상품성이 높음. 접목으로 전환하면서 재배면적을 800평에서 200평으로 축소함. 200평당 시설비용은 약 1천 5백 만원이고, 장흥군 지역의 겨울철 날씨가 비교적 온화하여 별도의 난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재배 초기에는 수요처를 찾지 못해 폐기처분한 물량도 적지 않았으며, 주로 외국인들 대상으로 판매함. 최근에는 국내 소비자의 판매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함. 주요 거래 대상은 인터넷 판매업체이고, 최근 인터넷을 통해 12개당 1만원에 판매됨. 그 밖에 파파야, 차요태, 오크라, 아티초크 등 열대작물은 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됨.

B농가 역시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술지도 없이 자가 터득한 노하우로 열대작물을 재배함. 최근 패션후르츠를 비롯한 열대과일·채소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열대작물 재배농가의 전망이 밝다고 밝혔으며, 수요 증가로 판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봄.

수입 동향

□ 2015년 1~6월 바나나, 파인애플 누적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자몽, 용과, 망고, 아보카도, 두리안, 파파야, 냉동열대과일 등은 큰 폭으로 증가

-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량은 주요 수출국의 작황부진 및 기타 열대과일 수요 증가로 감소
 - 2013년 필리핀산 생산량 감소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바나나 수입량은 2014년 다시 증가하였고, 2015년 1~6월 전년 동기 대비 소폭(△1.5%) 감소
 - 파인애플 수입량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필리핀산 작황부진으로 4.0% 감소
- 반면, 자몽, 망고, 용과, 아보카도, 두리안, 파파야 등의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 자몽과 망고는 생과일을 비롯해 주스, 과일빙수, 아이스크림 등의 가공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대중적 열대과일로 부상함에 따라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용과, 아보카도, 두리안, 파파야 역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 상승으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남.
- 신선열대과일 수입 증가와 함께 람부탄, 리치, 패션후르츠, 망고스틴 등의 냉동열대과일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람부탄, 리치, 패션후르츠, 망고스틴 등의 냉동열대과일은 하나의 HS코드(0811909000)로 통합·관리되며, 수입 냉동과일 중 중국, 베트남, 페루, 태국, 필리핀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냉동열대과일로 추정

표 2. 주요 열대과일 수입 동향

단위: 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월)	증감률 ¹⁾
품 목	국 가							
바나나	필리핀	336,563	347,635	363,163	306,517	343,501	179,809	-4.4
	과테말라	0	1,345	1,576	3,618	11,498	7,190	39.4
	페루	20	1,363	2,612	2,147	3,314	2,514	73.8
	소계	337,907	352,671	367,960	313,604	359,124	192,479	-1.5
파인애플	필리핀	59,372	69,636	72,998	75,611	72,186	35,196	-6.6
	코스타리카	1,093	3,373	41	71	2,303	1,377	180.3
	파나마	0	0	20	192	798	278	-6.1
	소계	60,565	73,009	73,131	75,917	75,420	36,979	-4.0
자몽	미국	7,084	8,671	8,681	9,487	10,911	9,236	27.6
	남아공	0	0	0	1,023	5,641	1,289	147.9
	이스라엘	777	666	1,770	1,070	2,939	1,475	-10.6
	소계	7,861	9,337	10,452	11,580	19,491	12,000	27.6
용과 ²⁾	미국	7,397	6,585	8,702	13,596	10,760	2,144	77.2

단위: 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월)	증감률 ¹⁾
품 목	국 가							
	베트남	0	97	82	188	727	411	18.2
	소계	7,402	6,739	8,823	13,784	11,494	2,571	64.8
망고	필리핀	336	583	1,085	2,954	4,961	3,868	16.1
	태국	476	810	1,319	2,447	4,619	4,365	26.5
	대만	528	494	406	723	909	1,165	232.9
	소계	1,351	1,892	2,839	6,154	10,599	9,535	33.2
아보카도	미국	355	228	295	474	665	657	54.6
	뉴질랜드	53	171	233	210	432	58	17.8
	소계	457	402	534	722	1,097	778	64.2
망고스틴	태국	0	378	202	341	650	349	-14.8
	소계	0	378	202	341	650	349	-14.8
두리안	태국	15	15	24	60	169	119	152.7
	소계	15	15	24	60	177	119	118.4
파파야	필리핀	97	94	54	60	118	78	45.4
	소계	97	94	54	60	118	78	45.4
냉동 과일	중국	14,267	16,396	17,142	15,131	12,533	4,812	1.7
	베트남	1,434	2,733	4,109	5,677	8,692	5,303	51.7
	칠레	154	1,576	3,019	6,055	6,602	4,027	53.0
	미국	3,321	3,954	4,143	4,656	5,912	3,711	23.2
	페루	17	123	176	465	1,874	3,013	157.0
	태국	1,564	1,454	1,689	1,479	1,761	1,066	50.8
	뉴질랜드	380	454	635	596	754	327	-19.4
	캐나다	543	1,300	1,365	1,315	669	273	-26.5
	필리핀	389	579	478	576	561	608	86.2
	소계	22,246	28,873	33,061	36,295	40,057	23,566	38.0

주 1) 증감률은 2015년 1~6월 각 품목 누적수입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2) 용과에는 용과 외에 기타 과일이 포함됨.

자료: GTIS-G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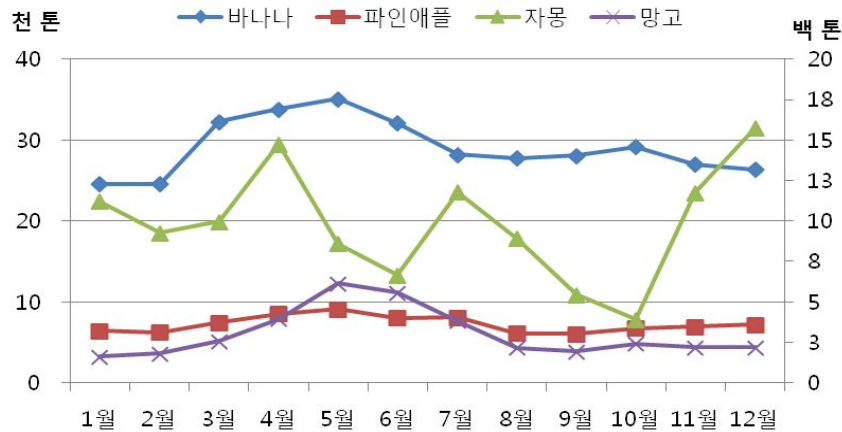
□ 바나나, 파인애플, 자몽, 망고 등 주요 열대과일은 연중 수입되며, 3~7월에 다소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열대과일은 기후의 특성상 연중 생산되어 계절에 관계없이 수입됨으로써 국내 과일·과채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3~7월에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국산 과일·과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줌.
- 상호간의 소비경합관계를 분석한 결과, 바나나는 봄·여름에 각각 수박, 포도와 경합관계에 있고, 가을겨울에는 사과, 배, 단감과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용선 외, 2014)²⁾.

2) 이용선 외 3인, 2014. 과일 수입 확대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1. 주요 열대과일의 월별 수입 동향



주: 2010~2014년 월별 평균 수입량을 나타냄.
 자료: GTIS-GTA.

□ 열대과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로 수입가격은 하락할 전망

-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대부분 필리핀에서 수입되며, 두 품목 모두 한·ASEAN FTA의 양허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단, 페루산 바나나는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한·중, 한·베트남 FTA가 발효될 경우 각국의 파인애플에 대한 기준관세율이 각각 15년과 10년 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었던 ASEAN산 열대과일에 대한 기준관세율은 한·ASEAN FTA 발효 10년차를 맞는 2016년 인하됨.
 - 2016년 ASEAN산 용과,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파파야에 대한 기준관세율이 20%씩 하락
 - 열대과일 수입 대상국이 대부분 ASEAN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열대과일 수입이 더욱 증가할 전망
- ASEAN 회원국을 포함한 냉동열대과일 주요 수출국은 대부분 FTA 체결국이며, 냉동열대과일에 대한 기준관세율은 5~20년 내 완전 철폐될 예정
 - 칠레산과 페루산은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베트남·태국·필리핀산에 대한 기준관세율은 2016년 전년 대비 20%(30%→24%) 하락

표 3. 주요 열대과일 양허 내용

품 목	주요 수출국	기준관세율(%)	양허 내용	비 고
바나나 (0803900000)	필리핀	30	양허제외	-
	과테말라		-	미체결
	페루		5년 철폐	2015년 0%
	에콰도르		-	미체결
	코스타리카		-	미체결
파인애플 (0804300000)	필리핀	30	양허제외	-
	코스타리카		-	미체결
	대만		-	미체결
	태국		양허제외	-
	중국		15년 철폐	미발효
	베트남		10년 철폐	ASEAN: 양허제외
자몽 (0805400000)	미국	30	5년 철폐	2015년 6%
	이스라엘		-	미체결
	남아공		-	미체결
용과 (0810909000)	미국	45	10년 철폐	2015년 27%
	베트남		10년 철폐	ASEAN: 2015년 45%, 2016년 36%
	대만		-	미체결
	뉴질랜드		양허제외	-
망고 (0804502000)	태국	30	20% 감축	2015년 30%, 2016년 24%
	필리핀		20% 감축	2015년 30%, 2016년 24%
	대만		-	미체결
	베트남		10년 철폐	ASEAN: 2015년 30%, 2016년 24%
아보카도 (0804400000)	미국	30	2년 철폐	2105년 0%
	뉴질랜드		10년 철폐	미발효
	멕시코		-	미체결
	캐나다		10년 철폐	2015년 27%
	영국		2년 철폐	2015년 0%
망고스틴 (0804503000)	태국	30	20% 감축	2015년 30%, 2016년 24%
두리안 (0810600000)	태국	45	20% 감축	2015년 45%, 2016년 36%
	필리핀		20% 감축	2015년 45%, 2016년 36%
파파야 (0807200000)	필리핀	30	20% 감축	2015년 30%, 2016년 24%
	캄보디아		20% 감축	2015년 30%, 2016년 24%
냉동과일 (0811909000)	베트남	30	5년 철폐	ASEAN: 2015년 30%, 2016년 24%
	중국		20년 철폐	미발효
	칠레		10년 철폐	2015년 0%
	미국		7년 철폐	2015년 12.8%
	페루		5년 철폐	2015년 0%
	태국		5년 철폐	ASEAN: 2015년 30%, 2016년 24%
	뉴질랜드		7년 철폐	미발효
	캐나다		7년 철폐	2015년 26.25%
	필리핀		5년 철폐	ASEAN: 2015년 30%, 2016년 24%

자료: 각 FTA 협정문.

시사점

□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 상승과 FTA 이행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으로 열대과일 수입량은 증가할 전망

- 과거 바나나, 파인애플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었던 열대과일 소비는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고, 소비패턴도 신선과일 위주에서 주스, 과일빙수, 아이스크림 등 가공품으로 다양화되는 추세
 - 열대과일을 비롯한 기타 과일의 수입 증가가 국내 과일·과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수요 증가와 함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각되면서 국내 열대과일 재배규모 확대 추세

- 제주,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열대과일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에는 농가와 유통업체의 계약재배로 전국 재배규모가 크게 확대된 품목의 사례도 나타남.
- 그러나 대부분 열대과일 품목의 판로가 불안정하고 초기 투자비용과 생산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농가는 투자 시 신중할 필요
 - 특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과의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FTA 영향에 따른 수입산의 가격 변화와 장기적인 소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열대과일 생산에 투자해야 함.
 - 과거 재배규모가 각각 800여ha와 270여ha에 달하던 바나나와 파인애플 농장이 수입자유화를 계기로 모두 폐업한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함.

□ 국내 열대과일 생산농가에 대한 지도와 수입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열대과일 재배농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향후 정부 정책 추진에 필요한 D/B 구축
 - 생산가격통계를 구축하여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포함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
- 지자체의 고소득작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대과일을 보급할 경우, 재배 기술지도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 마련
 - 열대과일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재배농가에 대해 현황 파악을 기초로 작목반 혹은 연구회 조직을 장려하여 농가 상호간의 정보 교류 촉진

- 국내 열대과일 소비시장 및 수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신규 투자에 대한 위험 최소화
 - 냉동열대과일처럼 하나의 HS코드로 통합·관리하는 품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수입실
적을 관리할 필요
 - 주요 수입열대과일을 소매가격 조사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

작성자 : 지성태 부연구위원, 이현근, 이수환 연구원 감 수 : 박준기 연구위원
